

김일성종합대학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 양성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손 계 립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1. 김일성종합대학의 성장 과정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인과 권력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족간부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기관은 군사 및 정치간부 양성을 위한 평양학원, 당 간부 양성을 위한 중앙

북한의 고등교육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2.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 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3. 김일성종합대학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 양성
4.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 기술 교육
5. 김형직사범대학과 교원양성
6. 고등전문학교와 직업기술 교육
7. 공장대학과 성인교육

당학교, 행정경제간부 육성을 위한 중앙고급지도간부 학교, 그리고 북한 최초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1948년에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혁명유자녀학원을 설립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새로운 지식인 집단, 권력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성장 과정은 창립 시로부터 지금까지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 북한의 모체대학 창립(1945~1950)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후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북한에서 자체의 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당시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의 결과로서 북한에는 해방 직후 고등교육을 받은 민족 인텔리가 매우 적었으며, 주민의 절대 다수가 문맹상태에 있었다. 해방 전에 북한에는 한 개의 대학도 없었으며 몇 개의 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나마 일반서민의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대학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합대학을 먼저 창립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우선 종합대학을 설치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많은 대학을 설치하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해방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첫 대학을 창설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1945년 11월에 대학 건설기성회를 결성하였다.

해방 직후 자체의 힘으로 종합대학을 창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때 북한에는 교육간부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을 관리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으며 대학 창설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46년 5월 25일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종합대학 창립사업이 전 주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46년 7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대학을 설치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법령 40호를 발표하였다. 법령 서문에서 김일성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민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 있는 고등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학을 설립한다고 밝혔고, 1946년 10월 1일 창립을 선포하였다.

김일성대학은 평양의과전문학교와 대동공업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학부로 편입시켜서 설립하였다. 공전 2학년과 의전 3학년 학생은 대학 1학년의 자격으로 입학시켰으며, 중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3년제 예과를 동시에 설치하였다.

창립 당시에는 7개 학부, 24개 학과가 설

〈표 1〉 창립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의 구성

학 부	학 과	교 원 수	학 생 수
문학부	사학과, 문학과, 교육학과	68	1,500
법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공학부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응용수학과, 토목공학과, 광산학과, 건축학과, 방직공학과		
농학부	농학과, 농업학과, 수의축산학과		
의학부	의학과, 약학과, 치과의학과		
철도공학부	기계공학과, 운전공학과, 철도토목학과		
7개 학부	24개 학과	68	1,500

* 출처 : 김창호, 『조선교육사(3)』, 1990년판, 182면.

치되었으며, 68명의 교원과 1,5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개의 예비과가 있었다. 1년 후인 1947년에는 학부 8개, 학생 3,813명으로 증가하였다. 창립 당시에는 홍국공업중학교, 창생상업중학교, 평양사범학교, 인민재판소, 검찰청 건물 등을 교사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인 소유의 호텔과 식당은 학교 식당과 기숙사로 수용되었고 교수들을 위한 사택 50채가 마련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보내준 수만 권의 책과 북한의 전 주민 서적 기증운동으로 마련한 도서로 총 6만 3천여 권의 장서를 가진 대학 도서관이 개관되었다.¹⁾ 같은 해 5월에는 대학에 연구원이 설치되었으며, 1947년 7월 7일에 첫 대학신문인 『종합대학』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1948년 2월부터 야간학부, 통신학부가 설치되었다. 대학 창립 초기에는 대학청사가 없어 임시건물을 이용하다가 1948년 9월에 대학 본 교사를 짓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종합대학에서 4개의 학부(공학부, 운수공학부, 농학부, 의학부)를 분리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평양공과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 사리원농업대학(한국전쟁 전에 원산으로 옮겨 원산농업대학으로 개칭함), 평양의학대학 등 3개 기술종합대학을 새로 창설하였다. 1949년 종합대학은 19개의 학부에 153명의 교원과 학생 2,746명으로 늘어났고, 이 해에 첫 졸업생을 내보냈다.

2) 전시교육체제(1950~1953)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간의 전시교육체제 시기에 종합대학의 교육사

업은 일시적으로 커다란 난관을 겪게 되었다. 폭격에 대학 건물은 파괴되고 많은 교원, 학생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나갔다. 이리하여 북한에서는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시체제로 개편되었다. 전쟁시기 종합대학은 평안남도 순천군 백송리 산 속에 교원, 학생들이 지은 반토굴 교사에서 1951년 새학년도부터 교육사업을 계속하였다.

전시 종합대학 교육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교원, 학생 대열을 꾸리는 문제였다. 미래의 인재양성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1952년 초에 전선에 나간 교원, 학생들을 소환하여 종합대학에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종합대학 학생수는 1951년에는 848명, 1952년에는 995명, 1953년에는 1,04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조병제사를 비롯한 과학연구논문들을 많이 내놓았다.

6·25 전쟁중 월북 및 납북된 유명인사 중 상당수는 그 후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며 전후 김일성대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25~45세 사이의 월·납북자들은 개성에 설치된 송도정치경제대학에서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해 남한 통치구도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중앙간부훈련원과 정치학원을 통합 설립한 인민경제대학에도 특설반이 설치되어 사회주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3) 전후 복구시기(1953~1956)

전후 시기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는 방침에 따라 종합대학은 가장 우선으로 복구 정비되었으며 실험실, 박물관, 도서관 등이 확장되었다. 교육과학사업

1)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자료실, 『학원의 딸아들』,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1, 138면.

의 기본 단위인 강좌는 정전 직후 35개에서 1956년에는 57개로 늘어났으며, 교원수는 258명, 학생수는 3,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53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수업연한도 4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되었다. 서해안 간석지, 고지대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4) '주체사회주의 건설' 시기(1956~'70년 대말)

1959년부터 북한의 전 사회가 '천리마운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증설되었다. 이 해에 청진광산대학을 비롯하여 15개의 대학이 설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일성대학은 대학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대학은 대학 교원들에게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법을 가르치고 교수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모범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70년에는 '천리마대학'이라는 칭호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이후 시기"에 와서 종합대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제기되는 과업을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당의 령도 밑에 종합대학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학과는 내오거나 조절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제때에 취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²⁾

특히 '60년대 중반기에 들어 와서 북한에서는 "유일한 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는 구호 밑에 종합대학은 우선으로 "주체적 사회주의 교육학의 새 장을 펼치었으며, 인텔리 혁명하의 앞장에 섰다."³⁾ 다시 말하여 그때부터 종합대학에서 이대올로지 교육을 더욱 더 강조하여 왔다. '70년대 말까지 종합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종합대학은 북한의 커다란 자산인 120만 인텔리 대군을 양성하는 데 책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5) 종합대학 정예화 시기(1980년대초 이래)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 '전 인민의 인텔리화'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일반대학보다 종합대학은 선차적으로 정예화에 들어섰다. 특히 김정일은 당·정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한 '80년대 초부터 간부급을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 가운데 발탁하고 있어 종합대학은 북한의 각급 주요 간부 양성 기지로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북한의 당·정 부부장급(차관급) 이상 고위간부의 70% 이상이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것만 보아도 이 대학이 북한 정권의 산실임을 알 수 있다."⁴⁾

이로 보아 현대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직원들 속에서 주체의 안목을 세워주는 사업을 강화한 데 토대하여 시범상황을 조직하였다."⁵⁾고 설명할 수 있다.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민의 대학』, 1983, 172면.

3) 위의 책, 188면.

4) 이종석, "우리식 교육을 강화하는 데 틀어진 고리-김일성종합대학에서", 『로동신문』, 1995. 10. 17, 5면.

5) 조명철, "북한의 경제와 대학", "김일성대학 나와야 출세", 『한국일보』, 1995. 4. 14.

2. 김일성종합대학의 현황

1) 개황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의 모습은 창립 당시에 비하여 매우 달라졌으며, 그 규모 역시 확장되었다. 156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40만 평방미터의 건평을 차지한 대학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약 50년이 넘은 본교사와 제1호 교사, 제2호 교사, 체육관, 과학도서관을 비롯하여 자연박물관, 출판사, 인쇄공장, 실습공장, 화학중간공장, 식물원, 동물사육사, 해양실습소 등이 있으며 기숙사, 식당, 병원, 종합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종합대학에는 현재 15개 학부에 100여 개의 강좌와 500여 개 실험실이 있으며, 10개 연구소에 100여 개의 연구실이 있고, 연구원과 박사원도 있다. 종합대학에는 600여 개 학급에 12,000여 명의 학생들과 6,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교직원 중 교육과 연구사업 담당 교수 및 연구사가 2,200여 명이 있는데 70명 이상의 교원은 준박사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교수는 총 교원수의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교수활동과 생활보장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월 평균 50원(북한돈), 최고 100원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재학기간중 학용품, 교과서, 교복, 숙소비와 시내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한 사람에 1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여학생은 총 학생수의 20~30%를 차지하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수는 총 학생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양시내의 학생들은 자기집에서 대학에 다닌다. 창립 당시부터 1995년 초까지 졸업생 총수는

6만여 명에 달하였는데 연평균 1,300~1,500명의 학생이 졸업하였다고 한다.

2) 조직 구성

① 행정 조직

북한의 대학 조직은 행정체계와 당에 의한 통제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총장은 일반적인 행정체계를 관할하고 있으며, 대학당 책임비서는 당과 사회단체를 통제하는 지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총장 직속기구로서 학부장과 행정부서장이 있으며, 당과 사회단체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학평의회'가 있다. 또한 총장 아래에는 제1부총장, 교무부총장, 과학부총장, 경리부총장 등 4명의 부총장이 있으며, 제1부총장은 노동당 대학 당위원회의 책임비서가 겸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학내 당 조직과 학생활동을 관장한다. 교무부총장은 교무행정, 과학부총장은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경리부총장은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관계를 맡고 있다. 교무부총장 아래에는 박사원장, 연구원장, 교무부장이 있으며 각 학부장, 강좌장, 행정부서장들은 교무부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제1부총장이 겸직하는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학부 당위원회를 통하여 대학의 관리와 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당적 통제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대학의 운영자이다. 각 학부 당위원회, 각 학년 초급당위원회 그리고 사회단체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과 여성동맹이 그의 관할에 있고, 대학의 강의 내용까지 노동당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② 학부 구성

김일성종합대학은 15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여 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로서 기초적인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역사학부와 철학부는 김일성의 혁명활동, 주체사상에 관한 이론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김일성주의 신봉자들을 양성하는 데 주역을 담당한다.

- 경제학부 : 정치경제학과, 계획경제학과, 재정경제학과, 경제조종학과, 대외경제학과
- 역사학부 : 김일성동지혁명역사학과, 김정일동지혁명역사학과, 조선역사학과, 고고학 및 민속학과, 세계역사학과, 종교학과
- 철학부 : 김일성주의로작학과, 주체사상학과, 주체철학과, 철학사학과
- 법학부 : 법학과, 국가관리법학과, 국가법학과
- 조선어문학부 : 조선문학과, 창작학과, 조선어학과, 민중고전학과, 신문학과, 도서관학과
- 외국어문학부 : 영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 수학부 : 수학과, 응용수학과, 프로그램학과, 역학과, 기계역학과
- 물리학부 : 물리학과, 고체물리학과, 극소형전자학과
- 원자력학부 : 핵물리학과, 플라즈마물리학과, 방사화학과
- 화학부 : 화학과, 분석화학과, 물리화학과
- 생물학부 : 동물학과, 식물학과, 토양학과, 실험생물학과, 생물공학과
- 지리학부 : 지리학과, 국토계획학과, 기

상수분학과, 해양학과

- 지질학부 : 지질학과, 지구화학과, 지구물리탐사학과, 수문지질학과
- 재교육학부 : 이 학부는 본과를 졸업한 후 3~5년간 일하다가 자기의 연구성과를 점점하거나 새로운 발전내용을 다시 학습하기 위해 대학에 나와 일정시간을 공부한다. 이 학부의 학제 기간은 대체로 두 달간이다. 즉, 해마다 두 번씩, 한 번에 두 달씩 공부하는데 철학, 역사, 경제, 외국어, 수학, 물리 학과 등을 설치하고 있다.

③ 연구소와 과학연구

종합대학에는 10개의 연구소가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소는 '주체사상연구소' 뿐이며, 나머지는 자연과학 분야에 속한 연구소인 바, 전자계산기연구소, 계산연구소, 생물공학연구소, 촉매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원자력연구소, 전자물리연구소, 분석연구소, 화학실험연구소 등이 있다.

연구사는 대학 내의 각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연구조수, 연구사, 상급연구사, 2급연구사, 1급연구사 등으로 구별된다. 북한에서 과학연구 사업의 최고 수준과 권위적 평가칭호는 원사라고 하고 그 다음은 후보원사이다. 원사는 해당 분야의 연구사와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칭호로서, 북한중앙인민위원회 학위학직 및 인민상 수여위원회에서 수여한다. 원사는 지금 북한에 24명이 있다고 하는데 종합대학에만도 5명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몇 명의 후보원사가 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과학연구 수준과 지위가 어떠한가를 알아볼 수 있다.

3) 수업연한과 교육과정

김일성종합대학의 인문·사회과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 반, 자연과학부의 수업연한은 5년 반이 규정되었으나, 정예화의 방침에 따라 종합대학에 모집된 학생들이 먼저 1년간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본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인문·사회과학 부문 학부가 5년 6개월제, 자연과학 부문이 6년 6개월제로 규정된다.

종합대학에서는 한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방학기간은 매학년도마다 9주간이다. 북한의 대학에서는 학년학과제를 실시하여 종합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에 총 과목수 24~35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실험 실습이 요구되는데, 사회과학부는 30%, 자연과학부가 50%를 차지한다. 종합대학의 교육과정안 규정은 모든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과목을 공통으로 요구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로작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 외국어로 영어, 러시아어, 중어, 일어 중 두 가지 선택
- 사회주의 헌법
- 주체철학
- 주체정치경제학
- 체육
- 고등수학
- 프로그램작성법
- 한문
- 환경보호

이 외에도 각 학부의 과정은 일반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종합대학의 교육과정체제는 ‘학부-학과-전공반’이라는 체계가 된다.

대학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초학문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현대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응용학문 및 첨단과학기술학문이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최근 ‘우리식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데서 종합대학이 잘한 것은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들에게 ‘우리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표상을 준 다음, 완강한 실천력으로 교수요강과 강의안 작성을 완성하고, 새 학년도부터 새로운 강의안에 기초한 교수사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고찰단이 이웃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대학의 과정안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체 교수요강과 과정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외국인 유학생 현황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1950년대 초부터 외국 유학생을 받아왔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 온 외국 유학생들도 있다. 종합대학에 유학생을 파견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몽골, 러시아, 알바니아,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베트남, 독일, 카메룬,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쿠바, 핀란드, 케냐, 캄보디아, 예멘, 파키스탄, 수리아, 칠레, 이란, 중국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다. 통계에 의하면, 1954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400여 명이나 파견하였다. 유학생들은 주로 조선어를 배우러 오지만, 졸업한 후 외교사업과 조선에 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3. 김일성종합대학의 엘리트 양성 기능

김일성종합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북한의 새로운 지도 인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서 해외유학 경력을 거치는 것이 권력 엘리트로 등용되는 관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학교기관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김일성 혁명노선에 충실한 새로운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지식인은 북한 사회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형성되었다.

해방 직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 핵심부는 김일성대학을 통하여 신진 공산주의 추종자를 배출하는 한편, 이들을 자기 세력의 중심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방 직후 북한 내의 다양한 정파 속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추종세력을 배출하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이다.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거나, 여기에 모스크바대학 유학까지 마친 사람이라면 처음 진출하는 자리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일 경우가 많다.

북한의 정무원 부장급 이상 1/2, 부부장급 이상 1/3이 김일성대학 졸업생이라고 할 만큼 김일성대학은 지도급 인물을 배출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 100위 이내

의 인물 중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25명,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는 김정일을 비롯하여 34명에 이르고 있다. 김정일이 1964년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으며 그의 동생들과 김일성의 처 김성애까지 영어영문학과 졸업생이라는 사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위상을 말해준다.⁶⁾

올해 10월 1일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이다. 종합대학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안내 책자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주체적인 교육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있다.”⁷⁾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학문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학과목을 설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발전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0년을 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발전계획은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교육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을 확립하고 당의 방침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최우선으

6)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5.

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소개』, 화첩 4면.

로 중시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적인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정치사상성을 지탱하는 지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 부자의 권력체제에서 핵심적인 권력 엘리트를 배출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들은 북한 권력 엘리트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김일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중시하였다. 김일성 생전에 종합대학의 발전과 개혁에 대하여 500여 차례에 걸쳐 직접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대학을 방문한 적도 102차례로 기

록되고 있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도 종합대학에 대하여 지시와 혼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을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여전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한만길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의 다수가 있다.

손계림 /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유학하였으며,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후 한국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의 다수가 있다.